

팬데믹 시대 이후 음악 교과서의 매체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구진우* · 김사훈**

[요약]

코로나로 인한 적극적인 원격수업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기존 기술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당시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교과서에 제시된 매체 활용 양태는 지금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조금 더 원격수업을 고려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에 활용된 매체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매체 활용은 온전한 매체 활용과 대체재로서의 매체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의 매체 활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매체가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음악 교과서, 교과서, 매체, 2015 교과서, 2022 교과서, 원격 수업

* 서울청룡초등학교 교사, 제1저자, 교신저자, orff1982@sen.go.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2저자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저자이자 교신저자인 구진우의 석사논문 “교육 매체 기준에 따른 초등음악 교과서 활용 분석” 중 일부를 재구성 및 확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저자는 주저자의 석사논문 중 일부를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기획하고 연구 문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글을 진술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논문접수 : 2022년 5월 7일, 수정제출 : 2022년 6월 18일, 게재승인 : 2022년 6월 20일



I. 서론

COVID-19로 인해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이예슬 외, 2021).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방식이 가장 풍부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원격 의사소통 방식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라고 인식된다. 사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화상회의 방식의 수업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즉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이 활용하던 방식이기도 하며, 호주와 같이 국가의 영토가 넓어 매일 등교하기 힘든 나라, 혹은 홈스쿨링을 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었던 방법이다(박삼철, 2012). 하지만 학교가 교수-학습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교육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굳이 인프라 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그 인프라를 변경한대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격수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기존 기술들의 재발견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언젠가 찾아올 원격학습의 시대를 위해 천천히 연구되고 접목되고 있었던 지식과 기술들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급작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의 강제적 활성화는 교육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의 대면 수업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생각되던 교육 콘텐츠 및 기술들이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적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제는 콘텐츠 자체가 수업의 주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이 기존의 대면 수업의 질과 동등해져야 했으며,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송출해야 했기에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가 급속도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팬데믹이라는 시대 상황은 교육에서 원격수업이라는 영역의 급격한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고, 이는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오영범, 2021)

동시에 우리는 원래 우리가 알던 일상으로의 복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한다. 예컨대, 다시 대면 학습으로 돌아간다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원격 학습은 어떻게 되는가? 그저 한 시기를 넘기기 위해 사용되었던 임시방편일 뿐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발전시켰던 매체의 활용을 교육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시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장점, 부작용 등 다양한 결과들을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 중 이 연구는 교과서에 활용된 매체의 양태에 집중하였다. 최근에 행해졌던 원격수업은 원격수업 그 자체를 염두해 두고 제작된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아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당시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교과서에 제시된 매체 활용 양태는 지금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조금 더 원격수업을 고려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현 시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매체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교과서는 어떠한 양태로 매체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에 활용된 매체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매체가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원격 수업 유형 및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 유형

교육부(2020)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를 통해 비대면 수업을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교실 안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과 구분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비대면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격수업을 상호작용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원격교육 플랫폼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콘텐츠 공유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커뮤니티 플랫폼, 실시간 화상 플랫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박상훈 외, 2020; 신나민, 2020). 실시간 화상 플랫폼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출석 확인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발표나 토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플랫폼 안에서 교육 동영상, 지도안, 학습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은 온라인 강의실 공간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수행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은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으며 문제 기반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할 때 유용하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수업 유형과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 유형에 따라 그 특징과 종류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격수업 유형 및 플랫폼 유형에 따른 특징 및 종류

원격수업 유형	플랫폼 유형	특징	종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화상 플랫폼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출석 확인이 가능함.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발표나 토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줌(ZOOM), 구글 미트, MS팀즈,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 카카오 라이브톡, 구루미, 네이버 라인위스, 리모트미팅, 시스코웹엑스, 스트림 야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콘텐츠 공유 플랫폼	플랫폼 안에서 교육 동영상, 지도안, 학습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유통됨.	유튜브, KOCW(Korea Open CourseWare), K-MOOC 등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 강의실 공간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수행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있음.	
	커뮤니티 플랫폼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으며 문제 기반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할 때 유용함.	위두량, e학습터, MS팀즈, 클래스팅,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출처: 박상훈 외, 2020, p.16-17; 신나민 외, 2020, p.53, p.107

2. 음악 교육에서의 매체

수업에서 활용되는 플랫폼과 별개로 교과에서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체라는 말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며 매체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재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해보았을 때, 음악교육에서의 매체는 음악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구진우, 2021)

그럼 음악교육에서의 매체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교육 공학에서의 매체와 같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매체들은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른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매체들이거나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체들이 음악교육의 틀 안에 들어와 음악교육에 적용되었다(구진우, 2021). <표 2>는 음악교육에서 사용된 공학 기술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표이며 음악교육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매체(철판, 언어, 어쿠스틱 악기 등)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음악교육에서의 연대별 공학 기술 활용

연도	음악교육에 활용된 기술
1920년대	축음기(phonography), 라디오(Radio)
1930년대	레코드(records), 필름(films)
1940년대	텔레비전(Television), 릴테이프 녹음기(tape recorder)
1950년대	실물투사기(opaque projector),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Polaroid Land Camera)
1960년대	청음학습기(Audio-Unit machine), 오실레이터(Oscillator-Instruments), 오버헤드 프로젝터(Overhead Projector), 전자음악 스튜디오 기기(Electronic Music Studio Equipments), 메인프레임 컴퓨터(computer)
1970년대	신디사이저(Synthesizer)
1980년대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 귀도(Guido), 미디(MIDI), 전자 튜너(Electronic Tuners), 비디오테이프(videotape)
1990년대	오디오 CD(audio CD), 시디롬(CD-ROM), 전자키보드(Electronic Keyboard), 가라오케(Karaoke), 인터넷(Internet), 상호작용 멀티미디어(interactive multimedia)
2000년대	디비디(DVD), 전자 칠판(Smart Board), 팟캐스팅(Podcasting)
2010년대	스마트폰(Smartphone)

출처: 구진우, 2021, p.26

이러한 분류 외에도 사용된 유형에 따른 기준(음악 학습 및 평가를 위한 공학, 음악 활동 촉매제로서의 공학, 연구 모형 개발 및 가상 연구 실행을 위한 공학, 간학문적 연구를 위한 공학, 그 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공학)으로도 나눌 수 있다.

<표 3> 음악교육 공학에서의 매체 활용 유형 분류

활용 유형	음악 학습 및 평가를 위한 공학
	음악 활동 촉매제로서의 공학
	연구 모형 개발 및 가상 연구 실행을 위한 공학
	간학문적 연구를 위한 공학
	그 외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공학

출처: 구진우, 2021, p.26

3. 음악교과서에서의 매체 활용 분석

한편 음악교과서에서의 매체 활용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구진우(202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음악 교과서 중 4매체인 원격수업이 가능한 매체가 포함된 양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연구자 혼자 진행한 후, 음악교육학박사 3인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음악교과서에서의 4매체 활용 분석

출판사	학년	
	3, 4학년	5, 6학년
비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편경 (3학년, 78~79p) 스마트 기기 (악기 애플리케이션) · 찾아가는 음악회 (4학년, 90~91p) 스마트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사랑을 전하는 음악 영상 (6학년, 32~33p) 스마트 기기
지학사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마음, 음악에 담아 (5학년, 32~33p) 스마트폰 · 나는 텔레비전 스타 (5학년, 90~91p)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 리코더와 함께라면 (6학년, 16~17p)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팬데믹 시대 이후 음악 교과서의 매체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실 밖 작은 음악회 (6학년, 88~89p) 촬영 활동 언급
동아출판	· 즐기는 음악 나누는 기쁨 (3학년, 44~48p) 컴퓨터	분석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미래엔	· 지역 축제를 찾아서 (4학년, 58~59p) 컴퓨터	· 꿈을 찾는 음악 (5학년, 24~25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 지역 전승 문화재 (5학년, 76~77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 뮤직비디오 만들기 (6학년, 40~41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금성출판사	·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시간 (3학년, 42~43p) 컴퓨터	· 나무의 노래 (5학년, 42~43p) 스마트 기기 (매트로놈 애플리케이션) · 첫가락 행진곡 (6학년, 22~23p) 스마트 기기 (악기 애플리케이션) · 추억을 담아 음악 편지를 만들어 보아요! (6학년, 86~87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YBM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 추억 영상 만들기 (6학년, 80p) (스마트 기기) 영상 편집애플리케이션
음악과 생활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분석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천재교육	· 세계인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 (3학년, 68~70p) 컴퓨터 · 음악 축제에 참여해요 (4학년, 70~71p) 컴퓨터	· 눈꽃송이 (5학년, 70~71p) 스마트 기기 및 녹음기 · 독도 잠자리 (6학년, 65~67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및 촬영, 누리집 올리기)
천재교과서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 아름다운 합창 (5학년, 70~71p) 녹음기, 컴퓨터(학급 누리집에 올리는 활동) · 가을이 오면 (6학년, 50~51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 졸업을 준비하며 (6학년, 86~89p) 컴퓨터 (사진첩 제작 및 편집)

출처: 구진우, 2021, p.64-65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인정 교과서에서의 4매체의 언급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단원 및 차시에서 4매체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4매체를 포함하려고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4매체의 활용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기기(휴대폰, 태블릿을 통한 음악 및 촬영·편집 어플리케이션 활용)와 컴퓨터(편집 및 제작, 인터넷 커뮤니티 활용)의 활용이다.

위 표와 같이 구진우의 연구에서는 4매체에 해당하는 매체가 문서상에 등장하거나 언급되어도 매체의 활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4매체가 등장(교과서 및 지도서에서의 언급)했다는 이유로 온전한 활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온전한 매체의 활용이라는 의미가 해당하는 단원 및 차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매체의 필수적인 사용인 것이 아닌 이상, 학년과 수업 방법 등과 무관한,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한 무작위적인 매체의 활용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론

1. 음악 교과서 분석 프레임

이 연구는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진우(2021)가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구진우(2021)은 원격 학습에 활용할 때 쓰였던 매체를 ‘4매체’라고 정의하였다. 각 분류의 특징과 해당되는 매체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음악 교과 매체 활용 분석 기준

분류	특징	매체
1매체	가장 기초적인 매체 활용으로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업 시 사용되는 수업 도구가 포함	언어, 칠판, 분필 등
2매체	음악적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매체.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적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매체 안에 내재되어 있어 학습자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매체	음악 교과서, 악보, 음악 활동지 및 학습지, 사진, 동영상 등
3매체	학습자가 직접 음악을 연주하거나 창작하는 등, 음악적 경험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매체	악기(성악 포함), 음원,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 등
4매체	1매체, 2매체, 3매체가 합쳐진 하나의 매체로 모든 매체 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매체. 매체 안에서의 역할 전환이 빠르며 학습자가 쉽게 접근하고 표현하며 교수자와 및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 또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질 상승	PC,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 기반의 합주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교수학습용 웹 지원 프로그램 (i-scream, T-셀과, 비바셀) 등

출처: 구진우, 2021, p.39

여기서 4매체란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나 이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교수학습용 웹 지원 프로그램의 매체를 일컫는 말로 1매체, 2매체, 3매체가 합쳐진 하나의 매체로 모든 매체 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매체이다. 4매체의 특징으로는 매체 안에서의 역할 전환이 빠르며 학습자가 쉽게 접근하고 표현하며 교수자와 및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있으며 또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1, 2, 3매체의 특성이 4매체에 전부 녹아져 있다는 점과 교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4매체는 상황에 맞는 매체의 적절한 선택과 매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원격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4매체에 대한 예시에서는 원격수업 혹은 그와 비슷한 맥락이나 의미를 가진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진우(2021)의 연구에서 기술된 매체의 분류에서 4매체의 특성을 보았을 때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충분히 4매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초등학교 검정 음악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검정 음악 교과서’의 경우 기존에 나와 있는 9개 출판사인 비상교육, 지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금성출판사, YBM, 음악과 생활, 천재교육, 천재교과서가 연구 대상이며 3-4학년과 5-6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하였다.(음악과 생활 출판사의 경우 3-4학년만 분석)

〈표 6〉 2015 개정 초등학교 검정 음악 교과서

출판사	종류	교과서 수
비상교육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지학사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동아출판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미래엔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금성출판사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YBM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음악과 생활	음악3, 음악4	2
천재교육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천재교과서	음악3, 음악4, 음악5, 음악6	4

출처: 구진우, 2021, p.40

IV. 분석 결과

아래의 <표 7>은 4매체에 해당하는 매체가 문서상에 등장하거나 언급되어도 매체의 활용이라고 판단한 기존 연구 결과인 <표 4>를 온전한 매체 활용과 대체적 매체 활용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재분석한 표이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음악교과서에서의 온전한 매체 활용 분석

출판사	학년					
	3, 4학년	온전	대체	5, 6학년	온전	대체
비상교육	· 아름다운 편경 (3학년, 78~79p) 스마트 기기 (악기 애플리케이션)	○		· 가족 사랑을 전하는 음악 영상 (6학년, 32~33p) 스마트 기기	○	
	· 찾아가는 음악회 (4학년, 90~91p) 스마트 기기		○			
지학사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 내 마음, 음악에 담아 (5학년, 32~33p) 스마트폰	○	
				· 나는 텔레비전 스타 (5학년, 90~91p)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	
				· 리코더와 함께라면 (6학년, 16~17p) 스마트 기기 (동영상 촬영)		○
				· 교실 밖 작은 음악회 (6학년, 88~89p) 촬영 활동 언급		○

팬데믹 시대 이후 음악 교과서의 매체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출판	· 즐기는 음악 나누는 기쁨 (3학년, 44~48p) 컴퓨터		○	분석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미래엔	· 지역 축제를 찾아서 (4학년, 58~59p) 컴퓨터	○		· 꿈을 찾는 음악 (5학년, 24~25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	
				· 지역 전승 문화재 (5학년, 76~77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	
				· 뮤직비디오 만들기 (6학년, 40~41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	
금성출판사	·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시간 (3학년, 42~43p) 컴퓨터	○		· 나무의 노래 (5학년, 42~43p) 스마트 기기 (매트로놈 애플리케이션)		○
				· 젓가락 행진곡 (6학년, 22~23p) 스마트 기기 (악기 애플리케이션)		○
				· 추억을 담아 음악 편지를 만들어 보아요! (6학년, 86~87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	
YBM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 추억 영상 만들기 (6학년, 80p) (스마트 기기) 영상 편집애플리케이션	○	
음악과 생활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분석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천재교육	· 세계인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 (3학년, 68~70p) 컴퓨터		○	· 눈꽃송이 (5학년, 70~71p) 스마트 기기 및 녹음기		○
	· 음악 축제에 참여해요 (4학년, 70~71p) 컴퓨터		○	· 독도 잠자리 (6학년, 65~67p)		○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및 촬영, 누리집 올리기)		
천재교과서	분석 결과 발견되지 않았음			· 아름다운 합창 (5학년, 70~71p) 녹음기, 컴퓨터(학급 누 리집에 올리는 활동)		0
				· 가을이 오면 (6학년, 50~51p)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0	
				· 졸업을 준비하며 (6학년, 86~89p) 컴퓨터 (사진첩 제작 및 편집)	0	

<표 7>에서 4매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 없는 차시인 경우에는 ‘온전’에 분류하였으며, 4매체의 활용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한 차시에는 ‘대체’에 분류하였다. 3학년의 경우 비상교육(1차시), 금성출판사(1차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4학년의 경우 미래엔(1차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5학년의 경우 지학사(2차시), 미래엔(2차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6학년의 경우 비상교육(1차시), 미래엔(1차시), 금성출판사(1차시), YBM(1차시), 천재교과서(2차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과서에 활용된 4매체는 온전한 매체로서의 활용보다는 많은 부분 대체재로서의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음악 교과에서는 매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 살펴보고, 음악 교과서에서의 매체 빈도 그리고 원격수업의 정의와 현장에서 원격수업 시 사용되는 매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음악 교과에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찾아본 매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서에서는 PC,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4매체가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매체가 원격수업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원격교육 플랫폼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에 제시된 원격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격교육 플랫폼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았고 다양한 학교급(초등, 중등, 대학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팬데믹 시대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원격교육에 사용되었던 매체의 활용도 어쩌면 감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행해진 원격교육은 교육 전달 방식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대면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과거의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능성이 그저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또 다른 갈래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악교육에서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교육에서의 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매체들이 음악교육에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그 교육적 효과성과 활용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교육에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교과서에서의 적극적인 4매체 활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들에서 4매체가 활용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활용이 적극적이지 않으며 일부의 단원에서만 실현되고 있다는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분류 하였듯이 앞으로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과서들에서는 매체가 대체재로서의 매체가 아닌 온전한 매체 그 자체 만으로의 활용을 중심으로 음악과 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4매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원격교육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격교육 매체를 포함한 첨단매체의 활용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져야 최고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매체의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매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음악수업에 활용된 원격교육 매체의 개선 및 새로운 형식의 매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용한 매체들은 기존에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어진 매체들이다. 즉, 음악교육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논문들에서 기존 매체들을 활용할 경우 생기는 매체들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에 맞는 음악교육전문 원격교육 매체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업 사례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현장에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결과들이 산출될 때, 매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나민, 이선희, 김수연(2020).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원격교육론**. 서울: 박영스토리.
- 교육부(202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교육부 보도자료.
- 박상훈, 김은협, 김태우, 유미경, 양성환(2020). **원격교육 수업 실행 방안**. KERIS 이슈리포트.
- 박삼철(2012).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4), 103-122.
- 오영범(2021). 초등학교 원격수업 사례분석을 통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한계. **초등교육연구**, 34(1), 109-139.
- 이예슬, 신범철, 정양순(202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교육학연구**, 59(1), 131-165.
- 구진우(2021). **음악교과 특성 기반 매체의 분류 기준 설정 및 활용 실제 분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Media Utilization in Music Textbooks after the Pandemic Era

Gu Jinu (Teacher, Seoul Chungryong Elementary School)

Kim Sahoan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tance classes due to COVID-19 a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content and the rediscovery of existing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revised in 2015, at the time of writing the textbook, the current epidemic situation could not be imagined, and the method of using the media presented in the textbook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from today. It is estimated that the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22 curriculum, which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need to include content that considers distance education a little more. In this study, the types of media used in music textbook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use of media in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playing an alternative role in many fields. Based on this, this study discussed how to use the media and what kind of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after the pandemic is over.

Key words: Music textbooks, textbooks, media, 2015 textbooks, 2022 textbooks, distance learning